

의령군, 설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경남=최근내 기자 | 승인 2025.01.25 15:59

경남 의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오택완 의령군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장면.(사진=의령군)

군은 매년 명절 전후 기간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 전통시장 장날 직원 1일 이상 장보기 자율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 시장을 찾은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의령군)

설 명절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 가격표시제 홍보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바가지요금, 가격·원산지 표시, 설 명절 물가안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23일 의령전통시장, 24일 신반시장을 방문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령사랑상품권으로 각종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의령농협, 의령산림조합도 함께 힘을 보탰다.



오태완 의령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의령농협, 의령산림조합 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의령군)

한편 의령군은 지역상권 안정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설 명절을 맞아 1월 한시적으로 의령사랑상품권을 15% 할인(카드·모바일, 지류는 제외) 판매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최근내 기자 gun828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